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강준민 목사가 나간 뒤 8개월이 되어갑니다. 8개월이면 거의 1년인데 그동안 우리교회는 바람잡은 날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서로간에 대화가 없다고 지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러나 오래 전, 한공리 장로님이 2번, 이영송장로님이 2번, 스티브 임장로님과 안광석 장로님이 각각 1번씩 장로님들과 집사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두어번 엄문섭 장로가 혼자 나와 “나는 장로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왔다”면서 식사만하고 갔을 뿐이며 나머지는 그나마 단 한명의 장로님들도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몇몇 원로장로님들이 또 중재에 나섰지만 단 한번도 자리를 같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아무개 집사가 있으면 나는 안간다?”, “우리가 왜 집사들을 만나야 하느냐?”면서 서로간의 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지난 1월 6일, 집사들이 당회원실로 찾아가 얘기를 하자며 노수정 장로님을 모셔와 마주 앉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 장로님을 납치, 감금했다고 장로님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제발 조용하자면서 당회원 장로님들을 먼저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강목사가 나간 뒤 첫 제직회를 열었는데 사회를 맡은 이영세 장로가 회의중에 아무런 말한마디 없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지난 2월 21일, 공동총회때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장로는 발언권을 주지않아 동의와 제청이 나와 정식으로 안건이 이뤄졌는데도 이를 무시, 결국 회의를 파행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들이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총회를 못하게 했다면서 예배시간에 나와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이때문에 예배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이유를 내세워 당회는 10여명의 집사와 장로들을 “정직”처분했습니다. 임시 당회장인 박제임스장로는 이를 항의하는 집사와 장로 7명을 “살인 미수”라는 이름으로 LA 지방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5월 21일, 박제임스장로의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12명의 장로와 집사들을 “교인 자격 정지”라는 우리교회 헌법에도 없는 죄목으로 징계했습니다. 이어 장로님들은 18명의 장로와 집사들을 영원히 동양선교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PRO(영구 접근금지명령)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주에는 피소된 교인중의 한 분인 이성주 장로님을 Deposition하겠다면서 출두를 요구해 왔습니다.

10여명의 교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몰아내기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싸움박질하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교회도 싫습니다. 더더구나 헌금을 몽땅 변호사들에게 주면서 이들 교인들을 쫓아내 달라고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교회도 싫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변호사님들이 그동안 장로님들에게 “이래서는 안된다”면서 올바른 당회가 되도록 충고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이같은 변호사님들의 충고마저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들은 돈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동양선교교회가 하나님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님들은 12명으로 제한돼있는 비영리단체 법을 고치고 그리고 잘못이 있는 장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따라 공동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공동총회를 소집하기위해 우리는 지금 서명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예배시간에 사회를 보던 부목사님들이 “당회에서 알려드린다”면서 이 서명운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무지한 소치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 제 70조에 3항에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공동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이 권리행사를 막을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일 예배시간에 부목사를 동원, 마치불순세력들이 선량한 교인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떠들게 한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난 주일 3부, 광고시간에 부목사의 말이 맞지 않다고 나선 배영하집사를 완력으로 내 몰지 말고 그의 의견도 밝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이영송 장로님은 지난 5월 31일의 교인 야유회 때 “서명은 우리교회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불법이다”고 했습니다. 이영송 장로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교회와 상관 없는 일”이라면 “남의 교회 일”인데 왜 간섭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교회 헌법을 한번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무 장로님이시라면 최소한 헌법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서명은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법을 전공한 변호사들, 특히 지금까지 장로님들의 편에 서서 우리교회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동양선교교회를 살리기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는 캘리포니아 주법에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만일 당회가 이를 반대할 경우 법원이 직접 나서서 공동총회를 평화롭고 공정하게 열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동양선교교회를 서로 싸우도록 수수 방관하지 말고 법에따라 다시는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명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집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헌법에 주어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임시 공동회의 개최 청원서의 서명과 내용 등에 관한 문의는 213-703-5700, 213-820-8550, 310-339-60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